또래 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on Bullying/Victimization and Overt/Relational Aggression: Focused on gender

심희옥*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과

Hee-og Sim
Kunsan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of Human Ecology Child & Family Studies Major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nsistency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aggressive victimiza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nd aggressive victimization and overt/relational aggression,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groups and overt/relational aggression with gender. The subjects were 4th grade children and 2 years later they were contacted again. Instruments were the Bully-Behavior Scale, the Peer-Victimization Scale and the Peer Nomination Instrument. Bullying, victimization and aggressive victimization were decreased while there were consistencies in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from 4th to 6th grade. In the correlation analysis, male victims at Time 1 were negatively related to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t both Time 1 and Time 2. Female bulli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relational aggression at both Time 1 and Time 2. In the cross-sectional relations of overt aggression with bullying groups,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al aggression with bullying groups, only bullying group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 of overt aggression with bullying groups, only gender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Males appeared to be more overtly aggressive than females. In the relational aggression, bullying groups, gender, and the interaction between bullying groups and gender had significant differences. Female bullies were more likely to be relationally aggressive than other groups.

Key Words : bullying, victimization, aggressive victimization, overt/relational aggression, bullying groups

Ⅰ. 서론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주 척도가 될 수 있는 원만한 또래관계가 학교에서의 또래 괴롭힘 문제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또래 괴롭힘에 관한 여러 연구가 행해져 오고 있다(권준모, 1999). 또래 괴롭힘이란 어떤 집단 안에서 특정인을 소외시킴으로서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 또래 괴롭힘은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강조되지만 단 한번의 심각한 괴롭힘도 특수 상황에서는 괴롭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Olweus, 1993).

공격성 같은 행동문제가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와 관련되어 아동의 원만한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Parker & Asher, 1987).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해치려는 의도에서 하는 행동인데 공격성은 외현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외현적 공격성이란 누구를 치거나 미는 행동 같은 신체적이며 타인을 때려눕히겠다는 위협 같은 언어적인 공격으로 남아에게 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이고, 관계적 공격성은 주로 여아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에 초점을 두어 어느 집단

* Corresponding author: Hee-og Sim. Kunsan National University
Tel: 063) 469-4624, Fax: 063) 469-4620
E-mail: simh@kunsan.ac.kr

에서 한 아동을 고의로 빼 버린다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해서 우정과 감정을 해치려는 행동을 말한다(Crick & Grotpeter, 1995).

또래 괴롭힘 가해가 공격적인 행동이기는 하지만 또래 괴롭힘의 가해아동과 공격적인 아동이 같은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utton, Smith & Swettenham, 1999). 또래 괴롭힘에 연루된 아동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많은 연구들이 또래 괴롭힘 가해자들이 공격적이라고 한다(강진령 · 유형근, 2000; 이춘재 · 곽금주, 2000; 조성호, 1999; 한종철 외, 1999). 또래 괴롭힘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보통 아동보다 더 사용하며 충동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한다(Olweus, 1993). Rigby(1996) 역시 또래 괴롭힘 가해자는 일반 아동보다 크고 강하며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이입이 낮고 협동적이지 않다고 한다. Menesini와 그의 동료들(1997)은 8-11세 아동의 관찰연구에서 또래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자는 지배적이며 다른 사람을 조절하려는 특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서미정 · 김경연, 2004).

또래 괴롭힘에서 가해와는 달리 또래 괴롭힘 피해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또래 괴롭힘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유약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 또래 괴롭힘 피해와 공격성은 부적인 상관이 있다(신유림, 2000; Schwartz, 외, 1998). 그러나 또래 괴롭힘 피해아동 역시 공격적인 면이 있어서 Perry, Kusel과 Perry(1988)는 피해자 집단을 공격성이 낮은 피해자와 공격성이 높은 피해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Olweus(1994)는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피해자와 도발적인 피해자로 구분하고 있다.

적은 수의 아동이 지속적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데(Smith, 1991) 이들은 대개 순종적이다(Olweus, 1978; Schwartz, Dodge, & Coie, 1993). 그러나 이런 또래 괴롭힘 피해자 중에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공격적인 아동이 있다(Perry 외, 1988). 이런 아동은 화를 돋우고 공격적인데 이들은 공격적 피해자로 연구들은 이들을 사회적이고 행동적인 면에서 고위험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Bowers, Smith, & Binney, 1992, 1994; 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 Perry, Willard, & Perry, 1990; Rigby, 1994). 공격적인 피해자와 공격적이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는 아동과의 차이는 공격적 피해자가 과잉행동과 정서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공격적 피해자가 안절부절못하고 신경질적이며, 화를 잘 내고 조절되지 않은 정서를 표현해 또래에게 거절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Hubbarde & Coie, 1994; Olweus, 1978). Pellegrini, Bartini와 Brooks(1999) 그리고 Pellegrini와 Bartini(2000)는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 척도 점수를 합해 공격적(aggressive) 혹은 도발적인 피해(provocative victim)라고 명명하면서 또래 괴롭힘에서 공격적 피해가 기질상 지나치게 활동적인 것과 관련이 깊고, 공격적 피해는 또래 인기도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유림(2000) 또한 4-6학년생 대상의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자 아동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고, 공격적인 피해자가 있다고 하며, 공격적인 피해자들은 또래 괴롭힘뿐만 아니라 또래로부터의 거절 및 친구관계의 부재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또래 괴롭힘 예방이나 대처를 위한 개입방법이 하위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공격적 피해자가 또래 괴롭힘 가해자, 피해자, 일반아동과 어떤 다른 특성을 지니는지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만한 또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성의 안정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Olweus(1979)는 공격행동의 안정성에 대한 남아의 연구에서 공격성이 지능만큼이나 안정적이라고 한다. Tremblay 외(1996)는 캐나다의 0-11세 22,000명 대상의 연구에서 신체적인 공격성은 3-11세까지 줄지만, 간접적인 공격성은 4세에서 8세까지 증가함을 밝히고 있다. Crick(1996)은 초등학교 3-6학년생 대상의 1개월과 6개월 간격의 연구에서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이 남녀 모두 안정적이라고 한다. 이은주(2003) 역시 초등학교 5학년생 대상의 7개월 간격의 단기종단연구에서 언어적,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가 안정적이라고 한다. Vaillancourt, Brendgen, Boivin, & Tremblay(2003)는 4-7세, 6-9세, 그리고 8-11세 세 시기의 3천명 이상의 캐나다 아동대상의 연구에서 신체와 간접적 공격성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이렇듯 여러 연구를 통해 공격행동이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표출방식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Crick과 Grotpeter(1995)의 3-6학년생 대상의 연구는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우세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의 특징적인 공격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Rys와 Bear(1997)는 3학년과 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지만, 관계적인 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Tomada와 Schneider(1997)는 이태리 3, 4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남아의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가 여아보다 높다고 한다. Tremblay(2000)는 공격성에 관한 고찰연구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인간의 공격성에 관한 성별차이 논문에서는 아동기 초기이후는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간접적인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11-12세 여아가 남아보다 간접적인 공격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듯 남

아의 외현적 공격성이 여아보다 높다는 결과는 일관되나 여아의 경우는 일관되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관계적 공격성에서 남녀차가 일관되지 않다. 최보가와 임지영(1999)의 초등학교 3-6학년생과 중학교 1, 2학년생 대상의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성차이가 없었고, 이은주(2001)의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신체적 공격은 남아가 높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가 높으며, 심희옥(2003)의 4-6학년 대상의 연구는 외현적 공격성에서는 남아가 우세했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차이가 없었다. 이은주(2003)의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의 단기종단연구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성별 탐색에서 언어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안정성이 더 높았다. Bacon과 Nelson(2005)은 관계적 공격성에서 성차이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문항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고 문항전체의 비교보다 문항 하나, 하나를 비교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4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 수준이 여아보다 높고,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관계적 공격성을 문항별로 성차를 비교할 경우, 남아는 놀이나 활동을 할 때 또래를 빼버리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여아는 화가 날 때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과 말을 안하는 등의 공격성이 높아 관계적 공격성 문항에 따라 남녀차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외현적 공격성 수준에서는 남녀차이가 분명해 보이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성차는 단순해 보이지 않아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공격성과 관련이 깊은 또래 괴롭힘 역시 안정적이어서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종단연구들이 있다. Olweus(1978)는 또래 괴롭힘에 대한 3년간의 종단연구에서 3년 후에도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있음을 보고한다. Boulton과 Smith(1994)는 8, 9세 아동 대상의 1년간 3회에 걸친 연구에서 가해와 피해아동은 안정성을 보였고 가해행동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피해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안정성이 더 높다고 한다. Salmivalli, Lappalainen과 Lagerspetz(1998)는 남아의 가해행동은 매우 안정적이나 여아의 가해행동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함을 보고한다. 이은주(2003)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7개월 간격을 둔 단기종단연구에서 집단 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이 모두 안정적이고, 성별 탐색에서는 집단 괴롭힘 피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안정성이 더 높고, 또래 괴롭힘 가해에서는 여학생의 안정성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심희옥(2005)의 초등학교 4, 5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안정적이어서 가해자는 1년 후에도 가해자이기 쉽고,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로 남기 쉬웠다.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의 지속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횡단적인 관점보다는 종단적인 관점에서 이를 탐색해 보아야하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연구여서 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하다. 아동의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횡단연구와 더불어 종단연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종단연구는 횡단연구가 줄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아동의 발달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영향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 연구에서 성별차이가 일관적이지 않아 성별을 중심으로 첫째,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 더불어 공격적 피해와 또래 보고에 의한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의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연속 변인으로서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횡단과 종단적인 관점에서 탐색하며, 셋째, 또래 괴롭힘을 가해아, 피해아, 공격적 피해아, 일반아동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을 고려하여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수준을 횡단과 종단적인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이런 탐색들은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의 발달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또래 괴롭힘에 관여된 아동의 행동특성 중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차원에서 이들의 공격성에 대해 횡단과 종단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얻어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또래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자를 돌보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과 연루되는 아동의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또래의 영향이 증가하고(Berndt, 1979)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예민해지고 또한 대인관계 문제에 부적절하게 대응할 때 상당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횡단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 연구대상이고 종단연구는 2년 후 이들이 6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 및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적인 변화는 어떠한가?
2. 남녀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외현,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는 횡단 및 종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3.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수준은 횡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4.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외현과 관계적 공

격성 수준은 종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횡단연구인 Time 1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251명으로 남아는 139명(55.4%), 여아는 112명(44.6%)이고, 나이의 범위는 9-11세이며, 평균 연령은 9.82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3%,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5.34%, 대학교 졸업은 44.7%, 대학원 이상이 8.25%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30.6%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51%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2.5%이고,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5.6%, 대학교 졸업은 30.9% 대학원 이상이 6.17%였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41.0%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20.51%였다. 종단연구인 Time 2는 2년 후 Time 1의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인데 2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로 20%정도의 탈락이 있어 200명이 되었고 남아는 112명(56%), 여아는 88명(44%) 이었다.

2. 조사도구

1) 또래 괴롭힘 가해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Austin과 Joseph(1996)의 Bully-Behavior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아동에게 자신의 가해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첨가한(예,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3개의 보충문항을 포함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가해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아이들을 놀린다"이다. Time 1의 Cronbach's Alpha는 .82이고, Time 2는 .84로 나타났다.

2)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Neary와 Joseph(1994)의 Peer-Victimization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아동에게 자신의 피해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첨가한(예,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3개의 보충문항을 포함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피해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시당한다"이다. Time 1의 Cronbach's Alpha는 .81이고, Time 2는 .84로 나타났다.

3) 공격적 피해

또래 괴롭힘 유형을 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의 평균만 사용하거나(이춘재 · 곽금주, 2000; Austin & Joseph, 1996), 평균에 1SD 혹은 집단별 셀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이 염려될 때는 .8SD를 더해(Musher-Eizenman et al., 2002; Pellegrini, et al., 1999; Pellegrini & Bartini, 2000; Schwartz, et al., 1997) 여러 집단의 특징을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구분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형 분류와 더불어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를 모두 많이 경험하는 집단을 연속 변인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 척도 점수를 합해 공격적 피해라고 명명한 Pellegrini 외(1999) 그리고 Pellegrini와 Bartini(2000)의 제안을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Austin과 Joseph(1996)의 Bully-Behavior Scale과 Neary와 Joseph(1994)의 Peer-Victimization Scale을 합쳐 공격적 피해 점수로 상정하였다. Time 1의 Cronbach's Alpha는 .84이고, Time 2는 .82로 나타났다.

4)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ick과 Grotpeter(1995)의 또래 명명 도구(Peer Nomination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이는 반 친구들에게 외현과 관계적 공격행동을 하는 아동을 지명하도록 하는데, 해당 행동을 하는 반친구를 3명까지 적도록 한다. 외현적 공격성은 3문항, 관계적 공격성은 5문항이었다. 아동이 지명된 수의 범위는 반 전체의 수 -1의 수에 이르고 이 수는 합쳐져, 반의 인원과 공격성의 문항 수가 달라 동등한 비교를 위해 각반별로 Z점수로 표준화하였다(Crick & Grotpeter, 1995). 외현적 공격성 문항의 예는 "다른 사람을 치고 밀친다"이고, 관계적 공격성 문항의 예는 "거짓말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반 애들이 어떤 애를 싫어하게 한다"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Time 1에서 외현적 공격성의 Cronbach's Alpha는 .95이고, 관계적 공격성은 .91 이었고, Time 2에서는 외현적 공격성의 Cronbach's Alpha는 .94이고, 관계

적 공격성은 .92 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아동은 중소도시인 K시내에서 학교의 소재를 생각할 때 상중하의 경제적인 여건이 고루 섞인 한 개 초등학교 재학생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번안 과정에서 적합한 언어 선택과 아동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연구의 해당 연령 아동과 학교 교사의 자문을 통해 완성하였다. 질문지 응답은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반별로 실시되었고 질문지는 응답 후 바로 수거되었다.

연구문제 1의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ime 1과 Time 2 간의 paired-t 검증을 했고, 연구문제 2의 연속 변인으로서의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간의 횡단과 종단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문제 3과 4에서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차이를 횡단과 종단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하여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횡단자료는 이원분산분석을 하였고, 종단자료는 Time 1의 공격적 수준을 고려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다. 사후검증은 Duncan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남녀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 및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적인 변화는 어떠한가?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 및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적인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본 Time 1과 Time 2 간의 Paired-t 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 공격적 피해는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유의하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 공격적 피해에서 유의하게 감소했지만, 여아는 또래 괴롭힘 피해만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들이 지각한 아동의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은 남녀 모두 2년의 시간 흐름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남녀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외현,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는 횡단 및 종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연속 변인으로서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외현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가 횡, 종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지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표 1>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공격성에 대한 Time 1과 Time 2 사이의 Paired-t 검증

	변인	평균의 차	표준오차	t
전체	또래 괴롭힘 가해	.60	.26	2.29*
	또래 괴롭힘 피해	1.01	.28	3.62***
	공격적 피해	1.61	.46	7.14****
	외현적 공격성	.00	.06	.02
	관계적 공격성	.01	.07	.13
남아	또래 괴롭힘 가해	1.01	.34	2.93***
	또래 괴롭힘 피해	1.00	.36	2.77**
	공격적 피해	2.01	.58	3.44****
	외현적 공격성	-.04	.10	-.36
	관계적 공격성	-.02	.09	-.20
여아	또래 괴롭힘 가해	.08	.40	.20
	또래 괴롭힘 피해	1.02	.44	2.32*
	공격적 피해	1.10	.69	1.61
	외현적 공격성	.05	.05	.93
	관계적 공격성	.04	.11	.40

주. 공격성은 표준화되었음.
*p<.05; **p<.01; ***p<.001; ****p<.0001.

의하면, 연구대상 전체의 경우, 또래 괴롭힘 가해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횡단 차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또래 괴롭힘 피해가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은 횡단과 종단 차원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 때 또래 괴롭힘 가해가 높은 아동일수록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4학년 때 이들의 관계적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또래 괴롭힘 피해가 높을수록 횡단과 종단 차원에서 외현과 관계적인 공격성이 모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인 피해가 높은 남아는 2년 후에 외현과 관계적인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 때 또래 괴롭힘 가해가 높은 남아는 4학년 때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었고, 6학년 때는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또래 괴롭힘 가해가 높을수록 횡단과 종단 차원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괴롭힘 피해가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이 횡단 차원에서 높으며, 공격적 피해가 높은 여아가 횡단 차원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수준은 횡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또래 괴롭힘 집단분류는 Pellegrini 외(1999) 그리고 Pellegrini와 Bartini(2000)의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가해점수+피해점수) 집단은 세변인 각각에서 X>M+1SD인 경우를 또래 괴롭힘 가해아, 피해아, 공격적 피해아 집단으로 정했고 그리고 세 집단의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 집단은 일반아동으로 구분하였다. Time 1의 또래 괴롭힘 집단은 또래 괴롭힘 가해아가 19명(7.57%, 남아 15명), 피해아가 9명(3.59%, 남아 6명), 공격적 피해아가 42명(16.73%, 남아 28명), 일반아동이 181명(72.1%, 남아 90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외현 및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를 횡단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는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_{1, 246}$=26.16, p<.0001).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는 또래 괴롭힘 집단에서만 차이를 보여 또래 괴롭힘 가해아가 또래 괴롭힘 피해아 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4.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수준은 종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횡단연구와 마찬가지로 또래 괴롭힘 가해 집단을 구분해, Time 2의 또래 괴롭힘 집단은 또래 괴롭힘 가해아가 16명(8%, 남아 14명), 피해아가 13명(6.5%, 남아 9명), 공

<표 2>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공격성간의 횡단 및 종단적인 관계

		T1 또래 괴롭힘 가해	T1 또래 괴롭힘 피해	T1 공격적 피해	T2 또래 괴롭힘 가해	T2 또래 괴롭힘 피해	T2 공격적 피해
전체 (N=200)							
T1	외현적 공격성	.08	-.14*	-.05	.10	-.08	.00
T1	관계적 공격성	.18**	-.07	.05	.15*	-.09	.03
T2	외현적 공격성	.06	-.23***	-.11	.19**	-.08	.05
T2	관계적 공격성	.06	-.13	-.05	.17*	-.07	.05
남아 (N=112)							
T1	외현적 공격성	.04	-.22*	-.13	.15	-.10	.01
T1	관계적 공격성	.15	-.21*	-.06	.21*	-.15	.01
T2	외현적 공격성	.01	-.31***	-.20*	.26**	-.10	.07
T2	관계적 공격성	-.06	-.25**	-.20*	.17	-.05	.06
여아 (N=88)							
T1	외현적 공격성	.08	.21*	.17	.03	.01	.03
T1	관계적 공격성	.22*	.18	.23*	.08	.02	.07
T2	외현적 공격성	.14	.10	.13	.18	-.07	.07
T2	관계적 공격성	.23*	.07	.17	.16	-.11	.04

주. 공격성은 표준화되었음.
*p<.05; **p<.01; ***p<.001

<표 3>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횡단의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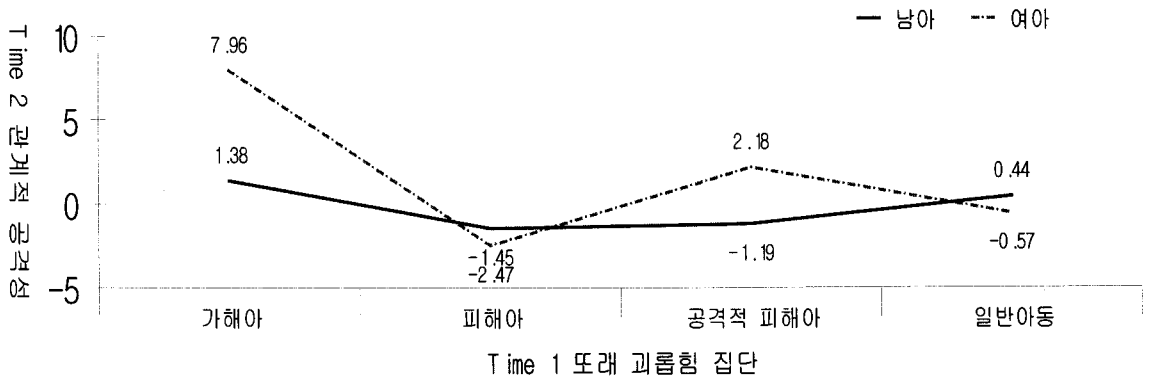
Time 1 / Time 1	가해아	피해아	공격적 피해아	일반아동	F
외현적 공격성	.35	-.42	.06	-.03	1.10 NS
관계적 공격성	.48[a]	-.56[b]	.11[a]	-.05[ab]	2.77*

주. 공격성은 표준화되었음.
*p<.05.

<표 4>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종단의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분산분석

Time 1 / Time 2	가해아	피해아	공격적 피해아	일반아동	F
외현적 공격성	.81	-.51	-.47	-.01	69 NS
관계적 공격성	4.67[a]	-1.96[b]	.49[b]	-.01[b]	5.65***

주. 공격성은 표준화되었음.
***p<.001.



[그림 1] 성에 따른 Time 1의 또래집단별 Time 2의 관계적 공격성

격적 피해아가 31명(15.5%, 남아 20명), 일반아동이 140명(70%, 남아 69명)으로 나타났다. Time 1과 비교해 피해자가 늘고 공격적 피해자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외현 및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를 종단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개체 내의 효과는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표 4>,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_{1, 192}$=6.94, p<.001).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는 또래 괴롭힘 집단, 성별, 그리고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래 괴롭힘 집단에서 가해아는 다른 집단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적 공격성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_{1, 192}$=4.80, p<.05). 또래 괴롭힘 집단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결과($F_{3, 192}$=5.46, p<.001)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또래 괴롭힘 가해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이 가해 남아나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첫째,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 더불어

공격적 피해,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의 안정성을 탐색하였고, 두 번째는 연속 변인으로서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외현 및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횡단과 종단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는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정도에 따라 또래 괴롭힘 가해아, 피해아, 공격적 피해아, 일반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이들의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정도를 횡단과 종단적인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1. 남녀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 및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적인 변화는 어떠한가?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 공격적 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이 초등학교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 때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는 심희옥(2002)의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1년 후 5학년, 2년 후 6학년 때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이 장단기적으로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하고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참고하건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발달적인 변화로 사회적 기술이 발달해 아동이 또래 괴롭힘에 덜 연루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는 또한 횡단연구이기는 하지만, 김길임과 심희옥(2002)의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은 3, 4학년 아동보다 5, 6학년이 낮았고, 또래 괴롭힘 피해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낮아진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런 발달적인 변화에 성별차이가 있다. 남아는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 공격적 피해 모두가 감소했지만, 여아는 또래 괴롭힘 피해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분석에서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와 공격적 피해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성별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성별로 다른 발달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런 결과는 이은주(2003)의 또래 괴롭힘 가해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녀 모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이 지능만큼이나 안정적이라는 Olweus(1978), Crick(1996)과 Vaillancourt 외(200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여 외현과 관계적 두 차원의 공격성 수준이 초등학교 중반에서 후반까지 안정적임을 말해 준다.

2. 남녀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외현,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는 횡단 및 종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연속 변인으로서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는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남아와 여아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Time 1인 4학년의 경우, 또래 괴롭힘 가해는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깊어 또래 괴롭힘 가해에 연루된 아동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과 종단적인 관점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는 낮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가 높은 아동은 외현적으로 덜 공격적임을 말해 준다. Time 2인 6학년은 횡단 차원에서 또래 괴롭힘 가해가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과 관계가 깊었고 또한 2년 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던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렇듯 시기에 따라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의 관계가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중반에서 후반 아동이어서 신체적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이 또래 괴롭힘 가해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남아의 경우, 4학년 때 또래 괴롭힘 피해, 공격적 피해가 높은 남아일수록 6학년 때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은 낮았다. 횡, 종단적인 관점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가 낮은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남아의 경우 남아로서 공격성이 낮아 피해에 더 연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남아가 외현적인 공격성을 보이고 여아는 관계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것과 같은 규준적으로 성과 일치하는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이 심리사회적으로 더 적응적이라는 Crick(1997)의 연구를 생각할 때,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남아로서 적절한 외현적 방어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6학년 때 또래 괴롭힘 가해 남아는 외현적 공격성이 높고, 4학년 때 이들의 관계적 공격성 역시 높았었다. 이는 또래 괴롭힘 가해 남아는 두 차원의 공격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깊음을 말해준다.

여아의 경우, 횡, 종단적인 관점에서 또래 괴롭힘 가해 여아는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깊고, 또래 괴롭힘 피해 여아는 높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공격적 피해여아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여아의 또래 괴롭힘 가해가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에 반해 또래 괴롭힘 피해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Crick(1997)의 보고처럼, 여아의 신체적이며 외현적인 공격성이 이들의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성에 기대되는 것과 다른 행동특성 때문에 여아가 원만하지 못한 또래 관계를 더 맺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성별에 기대되는 행동 즉 남아는 외현적으로 공격적이기를 기대받고 여아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 기대되어 이에 반한 행동은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 특히 또래 괴롭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수준은 횡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횡단 차원에서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성별차이가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것은 다른 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심희옥, 2003; 이은주, 2001; Crick & Grotpeter, 1995; Rys & Bear, 1997). 또래 괴롭힘 집단간에 외현적 공격성의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일반아동이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에 더 연루된 아동이나 외현적인 공격성 수준이 횡단 차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또래들은 지각함을 말해 준다.

횡단 차원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또래 괴롭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또래 괴롭힘 가해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는 또래 괴롭힘 피해아 집단과 확연하게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연구들이 또래 괴롭힘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공격성이 높음을 뚜렷하게 보여 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래 괴롭힘 가해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특히 또래 괴롭힘 피해아 집단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또래들에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4. 성별과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 수준은 종단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Time 1의 외현적 공격성을 고려할 경우,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횡단적인 관점처럼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횡, 종단적인 차원에서 외현적으로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라 종단 차원에서 외현적 공격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일반아동이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에 더 연루된 아동이나 외현적인 공격성 수준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문제 2에서 또래 괴롭힘을 연속 변인으로 탐색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신체적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은 또래 괴롭힘 집단간에 횡, 종단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단적인 관점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는 또래 괴롭힘 집단, 성별, 그리고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ime 1의 관계적 공격성을 고려할 경우, Time 1의 또래 괴롭힘 집단에서 가해아는 다른 집단보다 Time 2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또래 괴롭힘 가해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는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Rys와 Bear(1997)는 여아의 관계적인 공격성이 또래 거부 변인을 더 설명해 준다고 하듯이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아 보인다. 또래 괴롭힘 집단을 구분할 때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기 보다는 또래 괴롭힘 가해에 더 연루된 여아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말해준다. 특히 이런 관계가 횡단보다는 종단적인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2년의 경과 속에서 또래가 계속 바뀐 것을 생각할 때 또래 괴롭힘 가해 여아의 지속적인 공격성 발휘를 읽을 수 있겠다. 횡단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나 또래 괴롭힘 집단과 성별간에 상호작용이 없었음을 생각할 때, 가해 여아의 관계적인 공격행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정적인 쪽으로 고착되어 간 것이 아닌가 한다. Bacon과 Nelson(2005)의 제안처럼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는 관계적 공격성 측정 문항마다 차이를 가져오기도 해 이에 대해 문항차원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연구가 보완되어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성차 탐색이 온전해질 것 같다.

본 연구에서 연속 변인의 공격적 피해와 공격성은 Time 1에서 공격적 피해남아가 Time 2에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또래 괴롭힘에서 가해적이며 피해를 많이 경험한 남아가 2년 후 낮은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또래들에게 지각된 것은 본 연구로는 설명이 쉽지 않다. 이는 공격적 피해가 가해와 피해점수로 이루어져 남아의 피해가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나온 결과 때문인 듯한데 결국 또래 괴롭힘에서 가해적이며 피해가 높은 남아는 종단적으로 공격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발달적인 변화일수도 있겠고 또한 남아가 또래 괴롭힘에서 가해적이다가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해 공격성 표현이 적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 Time 1의 공격적 피해 여아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또래 괴롭힘에서 가해적이며 피해를 경험하는 여아들이 관계적인 공격성을 많이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괴롭힘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공격성 수준을 탐색할 때는 공격적 피해아의 독특한 공격적 특성은 없어 보여 공격적 피해나 공격적 피해아에 대한 좀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한 도시의 일부 아동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또래는 또래 간에 일어나는 모호한 상황에서 성인들은 감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자기보고나 또래 보고에 교사나 관찰자의 평가가 추가된다면 아동의 또래관계나 사회적 행동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에 관한 종단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발달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아동의 또래관계나 사회적 특성에 대한 종단연구가 촉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공격적 피해와 공격성을 외현과 관계적으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들 변인의 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탐색함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해준다. 또한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연속변인 차원과 또래 괴롭힘을 집단으로 분류해 횡단과 종단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동을 돕기 위한 중재 및 행동수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 또래 괴롭힘 가해, 또래 괴롭힘 피해, 공격적 피해, 외현/관계적 공격성, 또래 괴롭힘 집단

참 고 문 헌

강진령 · 유형근(2000).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권준모(1999).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학교폭력의 학술적 · 사회적 대안, 29-39.

김길임 · 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3(5), 139-151.

서미정 · 김경연(2004). 아동의 개인적 · 환경적 특성과 또래 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신유림(2000).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51-58.

심희옥(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 피해 · 친사회적 행동과의 횡 · 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3(3), 1-15.

심희옥(2003).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교사보고에 따른 문제행동과 유능성: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4(2), 79-92.

심희옥(2005). 또래 괴롭힘과 대인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63-279.

이은주(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7-180.

이은주(2003). 아동의 공격성, 또래관계 및 집단 괴롭힘의 안정성. 초등교육연구, 16(2), 283-300.

이춘재 · 곽금주(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조성호(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의 허와 실: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학교폭력의 학술적 · 사회적 대안, 43-54.

최보가 · 임지영(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7(5), 111-121.

한종철 · 김인경 · 김은정 · 박윤창 · 정태연(1999).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1차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47-150.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Bacon, C., & Nelson, D. A. (2005, April).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A scale and item-by-item comparison.*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tlanta, Georgia.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8-616.

Boulton, M., & Smith, P. (1994). Bullying/victim problem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2). Cohesion and power in the families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371-387.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15-232.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logy, 33*(4), 610-617.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1,* 1-20.

Menesini, E., Eslea, M., Smith, P. K., Genta, M. L., Giannetti, E., Fonzi, A., & Costabile, A. (1997). Cross-national comparison of children's attitudes towards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Aggressive Behavior, 23,* 245-257.

Musher-Eizenman, D., Heretick, D., Danner, S., & Vanderploeg, J. (2002, April). *Bully, bullied, or both: Difference in social cognition among aggressor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New Orleans, Louisiana.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 183-186.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their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5(4),* 852-875.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Olweus, D. (1994).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Pellegrini, A. D., & Bartini, M.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er affili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o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3), 699-725.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 (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Factors relating to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2),* 216-224.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Perry, D. G., Will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1,* 1289-1309.

Rigby, K. (1994). Psychological function in families of Australian adolescent school children involved in bully/victim problems. *Journal of Family Therapy, 16,* 173-187.

Rigby, K. (1996). *Bully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England: Jessica Kingsley.

Rys, G. S., & Bear, G. G. (1997). Relational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 Gender and developmental issues. *Merrill-Palmer Quarterly,* 43(1), 87-106.

Salmivalli, C., Lappalainen, M., & Lagerspetz, K. (1998). Stability and change of behavior in connection with bullying in schools: A two year follow-up. *Aggressive Behavior, 24,* 205-218.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Schwartz, D., Mcfadyen-Ketchen, S., Dodge, K., Petit, G., & Bates, J. (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t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87-99.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The Psychologist, 4,* 243-248

Sutton, J., Smith, P., & Swettenham, J. (1999). Bullying and 'theory of mind': A critique of the 'social skills deficit' view of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8*(1), 117-127.

Tomada, G., & Schneider, B. H. (199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peer acceptance: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over time,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601-609.

Tremblay, R. E., Boulerice, B., Harden, P. W., McDuff, P., Perusse, D., Pihl, R. O., & Zoccolillo, M. (1996). Do children in Canada become more aggressive as they approach adolescence?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and Statistics Canada (Eds.), *Growing up in Canada: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pp. 127-137). Ottawa: Statistics Canada.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Vaillancourt, T., Brendgen, M., Boivin, M., & Tremblay, R. E. (2003). A longitudin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direct and physical aggression: Evidence of two factor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4(1), 1628-1638.

(2007. 9. 3 접수; 2007. 11. 20 채택)